

이슈브리핑 vol.323 2025년 6월

ISSUE BRIEFING



광역경제생활권 과학문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거점 국립과학관 조성하자!

연구책임

연구진

이지훈 책임연구위원

안수용 연구위원

장성혁 연구원

요약

광역경제생활권 내 필수 문화공간,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 최근들어 과학관도 지역 경제생활권 내에서 도서관, 체육관, 공연시설 등과 같이 필수 존재해야 하는 필수 문화공간으로 인식이 확장되고 있음
- 2024년 과학관 운영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립과학관의 평균 관람객 수는 약 38만 명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거점 국립과학관은 과학관별 연간 약 100만 명이 방문하여 지역 내 생활인구 증대에 기여함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경제생활권과 지역과학기술 상징성 불구 과학문화 인프라 사각지대

- 국토교통부는 8대 경제·생활권 중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은 국립종합과학관, 강원은 국립전문과학관이 설립되어 있으나 특별자치도로 독립된 광역생활권인 전북과 제주에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 부재
- 국내 4곳의 광역연구개발특구의 경우 특구 지정 후 3년 이내에 특구 인근에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 모두 들어섰으나 전북은 지정 10년이 지났음에도 거점 국립과학관 부재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과학문화 수요 존재

- 2024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17개 시도 중 '교육/문화' 분야 과학기술혁신 역량 1위를 차지
- 전북자치도는 11개의 특정분야에 특화된 국·공립과학관이 소재하여, 국립종합과학관 조성 시 지역 내 소규모 과학관과의 연계·협력 가능성이 높음

전북의 특성과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한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조성 필요

- 타 지역이나 도내 소규모 과학관과 차별화된 킬러콘텐츠의 확보
- 거점 과학관으로 기존 소규모 과학관과 유기적 협력해 전북만의 과학문화 생태계 구축
-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과학문화 공간으로 활용

키워드 광역경제생활권,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전북특별자치도



광역경제권 핵심 인프라,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1.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란?

» 과학관은 “교육+문화+관광”이 결합된 과학문화의 공간

○ 과학관법에 따른 과학관은 “과학기술 자료를 수집, 조사, 연구하고 보존, 전시하며,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

- 교육 : 과학기술자료 기반 과학적 원리를 체험, 학습, 이해하는 공간
- 문화 : 과학과 대중이 결합되는 과학문화의 물리적 공간(이지훈 외, 2013)¹⁾
- 관광 : 여가문화시설의 문화적 범주에 포함되면서 유·무형 대상물과 연계되는 공간(출처 : 권순관 외, 2022)²⁾

과학교육	과학문화	과학관광
개인/단체 과학교육 과학캠프 등	+	과학콘서트 과학페스티벌 등
	+	과학놀이터, 과학전시관, 천문시설 등

〈표 1〉 과학관의 교육, 문화, 관광 기능

» 설립과운영 주체, 규모에 따라 전국적 138개 과학관 운영

○ 과학관은 설립과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과학관, 공립과학관, 사립과학관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출처 : 과학관법)되며, 전국적 138개 과학관 운영 중³⁾

- 국립과학관(13관) : 국가가 설립, 운영

- 공립과학관(89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 사립과학관(36관) : 국립/공립과학관 유형에서 제외된 법인, 단체, 개인이 설립, 운영하는 과학관

○ 과학관은 과학관법에 따라 시설과 보유한 과학기술자료 규모 등에 따라 종합과학관, 전문과학관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들 과학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지역거점 국립과학관(국립종합과학관, 국립전문과학관)의 역할을 담당

- 종합과학관 : 국립과천과학관 등 종합적 과학기술 전시, 교육 등을 제공
- 전문과학관 : 국립강원전문과학관 등 지역 특화 과학 기술과 결합하여 국가균형발전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과학관

구분	과학관명	주요 특징
종합	국립과천과학관	국내 최대 규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전문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의생명 특화
	국립울산탄소중립전문과학관	탄소중립/에너지 특화
	국립포항전문과학관	지질/해양 특화

〈표 2〉 국내 종합/전문 국립과학관 현황

○ 전북자치도는 2개의 국립과학관, 9개의 공립과학관 등 총 11개의 과학관이 소재하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은 없음

- 전북의 국립과학관은 기상, 농업 등 특정분야에 특화
- 전국 36개의 사립과학관 가운데 전북지역은 전무하며, 공립과학관은 교육청, 시군 등이 조성한 소규모 과학관

1) 지역 과학문화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 경기도 지역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이지훈 외, 2013, 기술혁신학회지 16(1))

2)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공급과학관의 운영특성에 맞는 연계형 활용유형 연구(권순관, 2022, 조형미디어학 25(4))

3) 2024년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2023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 전북 도내 공립과학관은 건강, 웅기, 우주, 곤충, 수생생물 등 특정분야 특화된 소규모 과학관이며, 정읍첨단과학관은 폐관됨

구분	과학관명	주요 특징
국립	국립전북기상과학관(정읍)	기상 특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전주)	농업 특화
공립	전북교육청과학교육원(전주)	
	무주반디별천문과학관(무주)	
	순창건강장수체험관(순창)	
	순창 웅기종기놀이과학관(순창)	
	남원항공우주천문대(남원)	
	남원어린이과학체험관(남원)	
	부안곤충탐사과학관(부안)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완주)	
	정읍첨단과학관(정읍)	폐관

출처 : 2024년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2023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표 3〉 전북자치도 과학관 현황

전통적 지역 필수 문화공간	현대적 지역 필수 문화공간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	과학관 (지역과학문화 향유)

〈표 4〉 지역 필수 문화공간의 변화

» 국립과학관 방문객 수 매년 증가

- 2024년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립과학관의 평균 관람객 수는 약 38만 명이며, 코로나19 이후 지속 증가함
- 2023년 기준 국립과학관의 평균 관람객 수는 38만 명으로 사립과학관의 약 2배, 공립과학관의 6배 규모임
- 국립과학관은 코로나19 이후 관람객 수 지속 증가

전체	국립	공립	사립
120,353	380,621	64,394	164,710

출처 : 2024년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2023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표 5〉 과학관 유형별 연간 관람객 수(명)

2021년	2022년	2023년
160,781	300,756	380,621

출처 : 2024년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2023년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표 6〉 국립과학관 연도별 관람객 수(명)

»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 국립과학관 2배, 약 100만 명 방문객

- 5대 국립종합과학관의 관람객 현황을 보면, 국립과학관의 2배 이상의 규모로 과학관별 약 100만 명의 연간 생활 인구 증대효과 기대
- 국립광주과학관은 2024년 약 95만 명, 국립부산과학관은 2023년 기준 88만 명으로 국립과학관에 비해 2배 이상 관람객 방문⁴⁾

4) 광주과학관(공공데이터포털 2024년 관람객 현황자료), 부산과학관(부산과학관 홈페이지), 대구과학관(대구과학관 홈페이지), 국립과천과학관/국립중앙과학관(이상희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2. 광역경제생활권 내 필수 문화공간,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 지역 필수 문화공간 :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에서 과학관으로 확장

- 4차 산업혁명, 평생교육, 과학기술적 사회문제해결 등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과학문화를 향유하기 위해 과학관은 지역의 필수 문화공간 시설로 자리함
- 전통적으로 도서관, 체육시설, 공연시설 등이 지역의 필수 문화공간 시설로서 인식됐으나, 최근들어 과학관도 지역의 필수 문화적 공간으로 정책적 자리매김함
- 담당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과학문화 생활SOC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과학관 건립 추진(출처 : 2025년 과학문화 생활SOC 확충사업 시행계획)

과학관명	연간 관람객 수
국립과천과학관	57만 명 (2024년 8월 기준)
국립중앙과학관	62만 명(2024년 8월 기준)
국립광주과학관	95만 명(2024년 기준)
국립대구과학관	38만 명(2024년 상반기 기준), 80만 명(2023년 기준)
국립부산과학관	88만 명(2023년 기준)

출처 : 각 과학관별 공개데이터(홈페이지 등)

〈표 7〉 국립종합과학관별 방문객 현황

»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은 광역경제생활권 내 과학 문화 확산 플랫폼

- 기 조성된 소규모, 분산된 과학문화 인프라를 결집,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권 내 거점 과학문화 물리적 공간으로 국립종합과학관 필요

-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국립대구과학관이 ‘대경권 과학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내 과학문화 인프라의 플랫폼 역할 담당

-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국립부산과학관이 ‘동남권 과학관 협의회’ 운영

- 전북자치도의 독자적 광역경제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전북권역 내 거점 플랫폼 조성이 필요

- 전북은 국립광주과학관이 주도하는 호남권과학관 협의회에 참여 중



전북자치도,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조성여건 확보

1. 전북 독자적 광역경제권,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부재

» 독자적 광역화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법에 따라 종전의 ‘전라북도’에서 ‘전북형 특례’를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과 독자 권역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함
 - 특별자치도는 고도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데 의의가 있으며⁵⁾,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특례를 부여받아 자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

5)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입법 강화의 쟁점과 과제 -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과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중심으로 - (김수연, 2023, 지방자치법연구 78호)

-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그간 전남, 광주와 함께 호남권으로 묶인 광역경제생활권이 전북만의 독자권으로 변화됨

» 전국적 8대 경제·생활권과 전북자치도의 독자적 광역화

- 2025년 1월,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8대 경제·생활권 육성 계획을 밝혔으며, 전북은 ‘광역권’으로 지정됨
 -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을 5개의 초광역권, 1개의 광역권, 2개의 특별권으로 구분하였는데, 전북은 특별권으로 지정된 타 특별자치도(강원, 제주)와는 달리 별도 광역권으로 지정됨

- 별도의 광역권으로 설정된 만큼 독자 광역경제권으로서 실질적이고, 특색있는 발전 방안 모색이 필요함

권역명	지역
초광역권 (5)	수도권, 4대 초광역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광역권 (1)	전북
특별권 (2)	강원, 제주

〈표 8〉 국토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8대 경제·생활권

▶ 광역경제생활권임에도 지역거점 과학관은 부재

- 광역경제생활권 중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은 국립종합과학관, 강원은 국립전문과학관을 두고 있으나, 전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지역거점 국립과학관(국립종합과학관, 국립전문과학관)이 부재한 상황
- 부울경권과 대구·경북권은 각각 국립종합과학관 1개소, 국립전문과학관 1개소 등 2개소를 보유하고 있어, 과학문화의 접근성 확대,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도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조성이 필요한 시점
- 전북자치도의 과학기술적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 과학기술 전시, 교육 등이 제공되는 종합과학관 조성 필요



〈그림 1〉 8대 광역경제·생활권과 국립종합/전문과학관

2. 지역거점 국립과학관이 유일하게 없는 광역 연구개발특구

▶ 도 단위 유일한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역거점 과학관 부재도 유일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르면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창출, 연구개발 성과 확산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의미하며, 5개의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강소특구로 구분됨
- 전북은 전북연구개발특구(2015년 지정)와 군산 강소특구(2020년 지정)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특구를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특별자치도’임



〈그림 2〉 광역연구개발특구별 국립종합과학관

○ 5개의 연구개발특구 중 전북을 제외한 4개 연구개발특구는 인근에 국립과학관을 두고 있으며, 부산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특구와 국립과학관이 반경 3km 이내로 인접해 있음

- 국립과학관과 연구개발특구는 과학대중화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전시콘텐츠 및 과학교육 융합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⁶⁾하고 있음

- 일례로, 2022년 국립중앙과학관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복합과학체험랜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공연구개발 성과 홍보·체험관 전시 지원, 체험관 운영 시 전문가 참여 등 협력기반을 마련함

○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제외한 광주·대구·부산연구개발특구의 경우, 연구개발특구 지정 후 3년 이내에 국립과학관이 설립되었으나, 전북연구개발특구는 지정된 지 10여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국립과학관이 부재한 상황임

연구개발특구명	국립종합과학관명(개관시기)
대덕연구개발특구 (‘92년 연구단지 준공, ‘05년 연구개발특구 확대개편)	국립중앙과학관 (‘90년 10월)
광주연구개발특구 (‘11년 지정)	국립광주과학관 (‘13년 10월)
대구연구개발특구 (‘11년 지정)	국립대구과학관 (‘13년 12월)
부산연구개발특구 (‘12년 지정)	국립부산과학관 (‘15년 12월)
전북연구개발특구 (‘15년 지정)	-

〈표 9〉 연구개발특구 및 국립종합과학관 현황

» 10개의 국가출연연구기관 기반 우수 연구역량 확보

○ 전북자치도 1개의 국가출연연구기관 본원(한국식품연구원)과 9개의 지역조직(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등)을 포함 10개의 국가출연연구기관을 기반으로 우수한 연구역량 확보

6) 국립중앙과학관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융합적 협력 사례 연구(권미자 외, 2021, 한국과학예술훈합학회 39(2))

- 전주, 완주, 정읍, 부안, 군산 등 전북 지역 내 우수 연구역량을 결집할 공간적 거점 개념으로 국립과학관 설립이 필요하며, 연구개발특구와 같이 연구성과 확산 및 과학기술대중화라는 목적 달성에 기여 가능

3.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사각지대에도 우수한 전북의 과학문화 수요

»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전북자치도 ‘교육/문화’ 분야 1위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수행한 2024년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17개 시도 중 ‘교육/문화’ 분야 과학기술혁신 역량 1위를 차지함

- ‘교육/문화’ 항목은 환경 분야의 하위항목으로 지역의 과학기술 교육/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중/고등학교 수학·과학 수업시수 비중과 생활과학교실 강좌 수로 측정

- 이는 전북 청소년의 과학기술 교육/문화 수요가 타 지역 대비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립과학관 조성 시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일정부분 확보될 것임을 시사

»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연계 소규모 과학관 풍부

○ 전북자치도는 11개의 특정분야에 특화된 국·공립과학관이 소재하여, 국립종합과학관 조성 시 지역 내 소규모 과학관과의 연계·협력 가능성이 높음

-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로 많은 과학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체로 소규모에 해당하여 지역 독자적 과학문화 거점을 구축하는데 한계가 존재

- 전북거점 국립과학관 조성을 통해 전북권과학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에 걸맞는 독자적인 과학문화 플랫폼 조성 가능

4. 지역 과학문화 접근성 강화 상위계획과 부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과 국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2020~2025)을 수립하여, 과학기술문화 비전 2025 프로젝트를 제시

» 지역별 과학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별 거점기능 확충과 부합

-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은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전 국민의 과학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제시, 중점 추진과제로 과학문화 접근성 강화, 청소년의 과학기술 흥미와 호기심 제고, 과학기술 격차해소 지원 확대를 제시
 - 국립전북과학관은 지역의 거점 과학관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별 과학·산업특성을 반영한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의 과학문화 격차 해소에 기여 가능

» 전문성 기반 과학문화 서비스 강화와 부합

- 두 번째 추진전략인 전문성 기반 과학문화 서비스 강화는 지역의 과학문화 기반 강화, 과학문화 플랫폼 강화 과제를 포함
 - 지역의 과학문화 기반 강화를 위해 광역지자체별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 지정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전북과학문화거점센터(군산대)가 설립됨
 - 국립전북과학관은 과학문화 지역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과학문화 네트워크에 참여하여 지역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 가능



자료 :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그림 3〉 지역 과학문화 네트워크



전북광역 경제권,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조성방향

1. 전북거점 국립과학관만의 킬러콘텐츠 확보

- 전북특별자치도 내 대표 과학관으로 향후 폭발적인 방문객 증대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 국립종합과학관, 도내 소규모 과학관과 차별화된 콘텐츠 확보 필요

» 전북 생명경제 연계 과학문화 콘텐츠

- 전북 지역거점 국립과학관 조성 시, 전북자치도만의 과학기술기반 첨단산업을 전시, 교육 할 수 있는 특별 전시관 및 공간 확보

- 국립광주과학관 인공지능관, 국립부산과학관 선박관 등 각 지자체별 육성 산업과 연계한 특별한 공간 조성

국립광주과학관(인공지능관)

국립부산과학관(선박관)



〈그림 4〉국내 종합과학관별 특화 콘텐츠

○ 전북은 생명경제에 포함되는 생명산업(농생명, 청정 에너지 등)과 전환산업(소재, 모빌리티 등) 등에 특화된 전시관 및 공간 조성 검토

- 가칭 전환산업관, 생명산업관, 생명경제관 등을 조성하여 탄소소재 기반 수소차, 드론/UAM, 자전거 등 모빌리티 전시, 체험, 교육 제공 등

» 전북 과학기술혁신자원 연계 과학문화 콘텐츠

○ 전북 생명경제정책과 함께 하는 도내 소재 10곳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미래연구, 연구성과물과 연계하여 전북에 특화된 콘텐츠 전시, 공간 조성

- KIST 전북분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등 연계 콘텐츠 전시, 퇴직과학자 과학강연 등 운영

» 국립과학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국비 지원

○ 국가차원의 권역별 과학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지역 거점 국립과학관의 지속적 질 좋은 과학문화 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예산 투입 필수

- 국립과학관 건립 이후, 과학관 자체 수익만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영비에 대해 국비 지원 필요
- 단기적으로 권역별 재정 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운영비에 들어가는 지자체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고 장기적으로 국가균형발전 관점에서 지역 필수 문화공간이라는 점에서 운영비 전액에 대해 국비 지원

- 전북 권과학관협의회를 통해 전북지역 과학관 간 상호교류 촉진

- 전북거점 국립과학관이 전북권 과학관 협의회의 운영기관으로 역할 수행



〈그림 5〉 전북거점 국립과학관 중심의 전북과학문화 네트워크 구축(안)

»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로 전북과학문화 생태계 공동 구축

○ 전북거점 국립과학관이 중심이 되어 전북권 과학관 협의회 차원에서 전북의 과학문화 생태계 강화

- 전북의 역사, 문화예술 등 자원 연계 과학문화 생태계 다양화(사례 : 광주과학관 : AI + 예술 AI융합콘서트)
- 전북 내 도서관, 학교 등 생활 SOC 연계 다양한 과학문화 활동 전개 : 찾아가는 과학관 등
- 전북지역 과학문화 활동을 강화하기 과학커뮤니케이터 등 전문인력 양성 등(사례 : 부산지역 과학커뮤니케이터 발굴을 위한 페임랩(FameLab) 부산 대회 등)

2. 소규모 과학관과 연계 전북 과학문화 생태계 조성

» 전북 독자권역으로 ‘전북권 과학관 협의회’ 구성

○ 전북자치도는 독자적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북지역 과학관 거점 역할이 가능한 전북거점 국립과학관 조성 완료 후, 전북권역 내 독자적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필요

3. 지역과 도민이 참여하는 유연한 전북과학문화의 거점공간 활용

○ 전북거점 국립과학관 조성 이후에는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활동이 가능한 공간 활용이 필요

» 전북과학축전 매년 개최, 장기적 국가 과학문화 이벤트 유치

○ 전북거점 국립과학관이 건립되면 매년 개최되는 전북과학축전을 과학관에서 진행

- 전북은 전북도청, 전북어린이창의체험관 부지 등을 활용 그간 과학축전 개최

- 사례 : 광주과학관은 광주 수학·과학축제를 광주과학관에서 개최하고 있음

○ 장기적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대한민국 과학기술 축제’를 타 지역과 연계 광역거점 국립종합과학관별 순회 방식 등으로 개최

- 2025년 ‘대한민국 과학기술축제’는 대전에서 개최되며 지역별 거점 국립과학관이 참여 중임

- 국가 주도 대규모 과학기술축제는 수도권, 대전 등을 중심으로 개최되어 왔으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 과학축전 등과 연계 순회 개최 검토 필요 (균형발전박람회, 지방시대 엑스포 등 사례)

- 사례 : 평창올림픽 시 스포츠과학 특별전(국립중앙과학관, 국립부산과학관 등)

» 전북거점 국립과학관 연계 전북 토탈관광 자원화

○ 전북거점 국립과학관의 관광 자원화를 위해 전북 토탈관광, 생태관광 등과 연계 프로그램 발굴·지원

- 전북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인 전북투어패스와 전북 국립과학관 연계 코스 발굴, 과학관광 특별코스 발굴 등(사례 : 대전사이언스투어)

- 전북투어패스 사용 시 전북국립과학관 입장료 할인 등



〈그림 7〉 과학관 연계 관광자원화 프로그램 사례

» 전주 하계올림픽 등 대규모 이벤트에 과학기술 특별전

국립중앙과학관 평창올림픽 특별전



국립부산과학관 평창올림픽 특별전



〈그림 6〉 2018 평창올림픽 연계 국내 종합과학관 특별전 사례

○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시, 스포츠 과학 등 특별전 운영

- 올림픽 이외에도 전북 첨단산업과 연계된 특별전(예: 수소모빌리티, 새만금 이차전지, 바이오 등 특별전 등)

참고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제3차 과학기술문화 기본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 2023년 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국립광주과학관, (<https://www.sciencecenter.or.kr/>)

국립대구과학관, (<https://www.dnsm.or.kr/>)

국립부산과학관, (<https://www.sciport.or.kr/>)

국토교통부, (2025),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권미자 외, (2021), 국립중앙과학관과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의 과학문화 프로그램 융합적 협력 사례 연구, 한국과학예술통합학회 39(2)

권순관, (2022), 문화관광자원으로서 공급과학관의 운영특성에 맞는 연계형 활용유형 연구, 조형미디어학 25(4)

김수연, (2023), 지방자치 환경변화에 따른 자치입법 강화의 쟁점과 과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특별자치도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23(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s://www.innopolis.or.kr/inno>)

이상휘 의원실, (2024) 2024년 국정감사 자료

이지훈 외, (2013), 지역 과학문화 현황 진단과 개선방안 : 경기도 지역에 대한 탐색적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기술혁신학회지 16(1)

iSSUE BRIEFING

vol.323



발행인_이남호 발행처_전북연구원

※ 이 이슈브리핑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전북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난 호 이슈브리핑을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